

담양서 ‘2027 남도정원 비엔날레’ 연다

전남도-군 공동 개최 준비 착수...정원가치 조명

죽녹원·국립정원문화원...지방·민간정원 확장

전남도는 전국 최초 정원의 공간적 경계를 넘는 정원문화행사인 ‘2027 남도정원 비엔날레’ 개최를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남도정원 비엔날레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개최와 지난해 전남의 맛·풍류가 어우러진 전통정원 ‘애양단’을 뉴욕에서 선보이는 등 전 세계에 정원의 본고장 전남이 널리 알려짐에 따라 그 명성을 잇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비엔날레는 주로 미술분야에서 2년마다 개최되는 행사다. 남도정원 비엔날레는 인문, 예술, 문화 분야를 넘어 정원 분야로 확장한 국내 유일의 행사다. 2027년 5월부터 6월까지 전남도와 담양군이 공동 개최하고 22개 시·군과 연계·추진할 계획이다.

‘정원의 경계를 넘어서(Beyond the

Garden)’-시간과 공간의 향연 속으로’라는 주제로 정원의 공간적·개념적 경계를 허물고,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제시하는 축제로 구성된다. 특히 자연과 예술, 생태와 도시가 어우러진 미래 지향적 정원문화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호남의 3대 정원인 소재원과 가사문학의 본고장으로 남도의 정원을 잘 담을 수 있는 담양군 죽녹원과 관방제림, 국립정원문화원을 메인으로 구례 지리산 지방정원, 민간 정원 30개소 등 22개 시군 정원 곳곳까지 확장해 개최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남도와 담양군은 올해 기본

구상을 완료하고, 2026년 기본·실시설계, 정원작품 공모전 개최, 기반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2027년 5월에 행사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2027 남도정원 비엔날레는 단순한 전시 행사를 넘어, 자연과 인간, 지역과 세계가 함께 소통하는 지속가능한 정원축제로 추진하겠다”며 “9월 개원하는 전국 유일의 정원기관인 국립정원문화원과 협업해 전남형 정원관광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박정열 기자 holbul@gwangnam.co.kr

담양=조성웅 기자 jnwnews@gwangnam.co.kr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19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실국장 정책회의를 주재하고 도정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제공=전남도

김영록 “여수세계섬박람회 총체적 지원TF 구성”

막바지 국비 확보활동...석유화학·철강 위기극복 총력 강조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9일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총체적 지원TF 구성, 정부 예산안 편성 막바지 단계 국비 확보활동 총력, 동부권의 석유화학·철강산업 위기 극복 정당을 찾기 위한 현장 소통 강화 등을 강조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도청 서재필실에서 실국장 정책회의를 열어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가 1년여 앞으로 다가왔다”며 “지난 2012 여수세계섬박람회를 이

지사를 단장으로 해 모든 관련 실국이 참여하는 총체적 지원 TF를 만들어 크게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국비 확보와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의 정부예산안 편성이 마무리 단계에 있지만 아직 노력할 여지가 더 있을 것이다”며 “아직 안 된 부분을 다시 한번 파악해 경제부지사를 중심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동부권의 석유화학·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올해 당장 해야 할 일과 내년에 할 일에 대한 계획에 대해 좀 더 추가적인 보강이 필요하다”며 “여수산업 현장과 소통을 강화해 무엇이 필요한지 그 답을 찾아 나가자”고 당부했다.

김영록 지사는 또 “오는 30일 개막하는 2025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와 10월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등은 전남의 매력을 세계에 알리는 대형 행사로, 이와 연계한 남도한바퀴 여행상품·한국관광공사의 숙박세일페스타 등을 모두 아우르는 공동 홍보마케팅을 통해 그 효과를 극대화하자”고 말했다.

박정열 기자 holbul@gwangnam.co.kr

광주 세계양궁대회 이벤트

댓글 등 참여시 경품 제공

광주시는 오는 9월5일 개막하는 ‘2025 현대세계양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국민적 관심과 참여 열기를 높이기 위한 이벤트를 개최한다.

대회 공식 누리집(www.gwangju2025.com)에서는 20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디데이(D-day) 응원 댓글 릴레이 이벤트’가 열린다.

대회 개막일까지 남은 일수를 활용한 응원 댓글을 작성해 참여할 수 있으며, 이벤트 종료 후 에어팟, 아웃백 상품권, 커피쿠폰을 추첨해 증정한다.

대회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gwangju_2025, 인스타그램)을 통한 이벤트도 20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다. 대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팔로우한 뒤 양궁 국가대표 선수 응원 영상 게시물을 공유하거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린 후 감무리(캣츠)해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치킨, 커피쿠폰을 증정한다.

현실공간(오프라인) 홍보도 이어간다. 지난 1일 기아챔피언스필드 홍보에 이어 20일 광주FC 경기가 열리는 광주월드컵경기장 밖에서 관람객을 대상으로 대회 마스코트 ‘에피(E-Pea)’ 인형탈 홍보를 진행한다.

양동민 기자 yang00@

이개호 “석화산업 성장 위한 정부 대응 단호”

정부 오늘 산업장관회의 개최

‘석유화학 구조 개편안’ 발표

“인센티브 기준 등 명확해야”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사진)은 19일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부의 ‘구조개편 추진과 무임승차에 대한 단호한 대응 방침’에 기업들의 선제적이고 자발적인 동참을 촉구했다.

이개호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여수·울산·대산 등 한국의 석유화학산업이 중국의 설비량 증대와 신흥 중동 국가들의 참여로 위기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마치 ‘끓는 가마솥 안의 개구리’와 같은 상황”이라며 “정부의 단호한 대응과 더불어 구조개편 참여 기업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음으로써 자발적 변화를 유도하는 한편 ‘무임승차’의 기준과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명확히 제시하고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또 “정부 대응이 긍정적인 효



과로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자발적참여와 책임 의식이 중요하다”며 “기업들도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수적임을

인식하고, 선제적으로 사업 재편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인수합병(M&A)을 통한 기업 규모 축소 및 개수 감축, 구조개편에 따른 세계 혜택 확대와 생산라인 변경에 대한 자금지원, 기술 집약적이고 마진율이 높은 특수 화학 제품·친환경 소재 등 고부가가치 제품으로의 포트폴리오 전환, 숙련된 인력을 고부가가치 사업에 전향배치, 연구 개발(R&D) 투자를 늘려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생산공정의 효율성 극대화, 기업경영 전략에 대한 지원을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20일 유은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산경장)를 열어 ‘석유화학 구조 개편 방안’을 발표한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광주 출생가정에 ‘상생카드’ 50만원 지원

광주시는 2025년 1월 1일 이후 광주에서 출생한 가정을 대상으로 출생아 1인당 50만원의 ‘출생가정 축하상생카드’를 지급한다.

이번 지원정책은 아이의 탄생을 시민 모두가 축하하고 응원하며,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 저출생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광주시의 올해 신규 정책이다.

‘첫만남 이용권’(출생아당 200만원, 둘째아부터 300만원)도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2022년부터 시비 매칭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영동 여성가족국장은 “아이의 탄생은 한 가정의 기쁨이자 광주의 미래”라며 “시민과 함께 출생을 축하하고 응원하는 문화를 확산해 아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양육비 부담 완화 효과

첫째아 0세·둘째아 이상 1세부터 가능...오늘부터 접수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광주에서 출생한 아이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결과, 첫째아는 출생(0세) 때부터, 둘째아 이상은 1세가 되는 날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출생아의 아버지나 어머니 등 출생신고 신청권자가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할 수 있고, 출생일 3개월 전부터 광주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해야 한다.

접수는 20일부터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된다.

광주시는 이번 지원을 통해 출생가정의 실질적인 양육 지원은 물론 저출생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광주시는 정부의 출산 지원금

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지원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온·오프라인 홍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캠페인 등 시민 채널을 통한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전남-곡성 모들러 주택단지 / 휴인 설계·시공

휴인주식회사
HUIN Co.,Ltd

공학목재(구조용 집성목재)
제조·공급하는 지역기업 입니다.



국내 KS 인증서 (구조용집성목재)



국내 신기술 인증서 (합판교의 CLT)



내화구조 인증서 (기둥, 벽체, 바닥)



집성목재 생산 및 납품



화순 - 지류센터 목구조 골조



화순 - 지류센터 목구조 설계지원 및 시공

- 목조건축 상담 및 설계지원
- 건축구조재(CLT) 신기술 인증 보유 기업
- 내화구조 1시간, 2시간 인증
- 구조용 집성목재 생산·시공(KS인증 보유)

문의 및 상담 Tel. 061-271-5777 / 062-945-0036~7

www.huin.kr